

식품영양학전공 인턴십 프로그램 향상에 관한 연구

주나미 · 윤지영¹ · 김옥선* · 정현아 · 박상현 · 조기원¹

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, ¹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전공

본 연구는 식품영양학전공 학생들의 실습담당자인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.

현재 운영중인 인턴십 프로그램 평가항목 결과는 연령층이 낮을수록,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($p < 0.05$). 급식장소에 따라서는 중·고등학교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초등학교가 유의적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($p < 0.05$), 위탁급식이 직영급식에 비해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($p < 0.05$). 영양사 자신의 평가항목 결과는 연령에 따라서는 20~29세가,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근무경력이 짧을수록, 급식장소에 따라서는 중·고등학교가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차는 없었다. 영양사 현장실습을 위해 향후 학교교육에서 강화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결과는 '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습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'가 다른 문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. 교과과목 이외에 비중을 두어 교육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영양사로서 사명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.33%로 가장 높았다. 그 다음이 전문지식의 응용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.33%, 서비스 정신 및 태도가 60.00%, 투철한 직업관이 54.67% 순으로 나타났다.